



# 성녀 카타리나

2021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29 일에는 우리 자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와 이 목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가장 놀랍고 소중한 인물들 중 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여인은 평생 지칠 줄 모르고 겸손과 희생, 봉사와 관대함, 무한하고 용감한 투신으로 주님의 명에 따라 교회와 교황을 섬겼습니다.

카타리나에게서,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 살고 죽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위한 열정으로 죽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카타리나와 같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대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과 그 충만한 실현에 대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이익과 현세적 특권을 따지는 계약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는 성녀 카타리나를 유럽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에나의 젊은 여인은 분명한 발걸음과 열렬한 말들로, 그 시대 교회와 사회의 문제들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성녀는 교회의 일치와 교회에 대한 충실을 위하여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순간들을 바치면서,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임종 때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 줍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성교회를 위한 제물로 제 생명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신부인 교회의 얼굴 위에 누르십시오.”

그러나 성녀의 삶을 잘 살펴보면, 성녀가 보편적인 성화 성소에 대한 자부심, 교회 교도권에 대한 순명, 교황에 대한 자녀다운 애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의 모든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확신으로 삶을 바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날, 신비적 체험에서 깨어난 카타리나는 고해신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너의 방이 네 수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는 이 도시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이름의 영광과 내 가르침을 크고 작은 모든 이들,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가져가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교황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스도교 백성들 앞에 나서게 하여, 약한 이들을 통하여 강한 이들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겠다.”

디오테오 래드클리프 신부는, 성녀 카타리나가 교회학자로 선포될 때에 수도회 전체에 서한을 보내어 성녀 카타리나의 메시지가 지금도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타리나 시대의 유럽은 오늘 우리의 세계와 같이 폭력과 불확실한 미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기를 잃어가고 정체성을 상실했고, 수도생활도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이 고통과 분열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교회와 사회의 개혁과 평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에 투신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려는 절박한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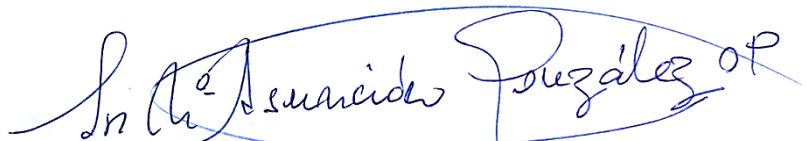
카타리나는 편하고 쉽게 진리와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과 눈높이를 맞추고, 평신도이며 여성으로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성도미니코의 수도회 안에서, 여성으로서 복음적 계획을 구현했고 우리 모두에게 어느 시대에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기준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카타리나처럼 공동체, 교회, 사회 안에서 설교자가 될 사명을 받아들일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성녀 카타리나여, 당신의 축일에 우리가 당신처럼 일치의 중개자, 평화의 도구, 정의의 옹호자, 하느님과 형제들과의 대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기쁜 성녀 카타리나 축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포옹과 기도를 보내며,



총장 M<sup>a</sup>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